

【논문】

## 하이데거의 역사성과 역사교육

정 덕 희\*·정은 해\*\*

【주제분류】 역사교육, 역사성

【주요어】 블룸, 콜담, 하이데거

【요약문】 이 글은 먼저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로서의 역사적 태도를 부각시키고, 이어서 하이데거의 역사성 개념을 살펴봄에 의해, 역사교육이 의도하는 역사적 태도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의미를 밝혀보려고 한다. 역사적 태도에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화 및 합리적 판단이 속한다.

하이데거의 역사성 해설에 따르면, 역사적인 가치화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에 의거해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찾고, 이를 수용하고 실현해 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이란 과거의 부정적 구습을 단절하고 잠재적으로만 머물러온 역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적 결의를 말한다. 이 같은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과 역사적인 가치화는 결국 개인의 역사적인 자기규정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미를 결단하는 실존적 행위이기도 하다.

---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 철학과 강사

## I. 머리말

우리의 삶을 해명하는 일은 철학의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하이데거는 그의 저작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과 역사적 삶을 현상학적으로 해명한다. 이 책의 중심주제는 인간에게서의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추적하여 양자 사이의 정초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일련의 예비적 논의들을 거친 후, 1부 2편의 4절과 5절에서 존재와 시간의 정초관계를 본격적으로 해명한다. 이 두 절의 제목은 각기 ‘시간성과 일상성’, ‘시간성과 역사성’이다. 이는 하이데거가 인간의 삶을 일상적 삶과 역사적 삶으로 대비시키고, 이 두 유형의 삶이 상이한 시간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바로 이러한 상이한 시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역사적 삶이나 역사적 태도를 강조하는 교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과목이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한 마디로 역사적 인간 내지 역사적 삶의 형성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하이데거의 역사성 해명은 역사교육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일반화하면, 철학이 교육현상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성립할 것이다. 학문의 분화가 이미 광범하게 진행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학 자체가 교육현상에 대한 해명을 전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상이 삶의 현상에 속한 것이고, 철학이 삶의 현상을 해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 삶에 대한 철학적 해명의 성과를 통해 교육 현상을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교육현상이 심리학의 연구성과나 경험과학의 연구성과에 점점 더 의존해 가는 것이 현재의 경향이라면,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더욱 더 절실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서 이 글은 먼저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로서의 역사적 태도를 부각시키고, 이어서 하이데거의 역사성 개념을 살펴봄에 의해, 역사교육이 의도하는 역사적 태도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역사교육의 성격

### 1. 역사교육의 목적과 기대

역사교육은 역사를 내용으로 하여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교육의 내용이 되는 바의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1)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하고, 2) 과거에 남겨진 기록이나 흔적을 말하기도 하고, 3) 역사가의 서술을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기 사실로서의 역사, 자료로서의 역사, 서술로서의 역사라고 불려진다. 이에 따라 역사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은 과거사실과 과거사료는 물론 역사학적 탐구과정도 포괄한다.

역사교육은 그것이 역사라는 특정한 부문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을 지라도, 교육의 일반적 목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교육목적을 정하게 된다. 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통상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이라고 말해진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교육은 일정한 계획 아래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교육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이란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임은 물론 높은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자 도덕적 태도를 갖춘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교육은 일반적으로 1) 역사적 지식을 전달 하면서, 2) 역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3) 이로써 역사적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활동이라고 말해진다.<sup>1)</sup>

---

1) 참고: 이원순·이정인, 『역사교육』, 정음문화사, 1985, 11-12, 20, 68-73쪽.  
정선영 공저,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쪽.

## 논문

이 같은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교육으로 얻어질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역사교육의 내용이자 교과가 되는 역사는 크게 나누면, 인류의 역사(세계사)와 한 국가의 역사(국사)다. 역사가 인류의 역사로 이해되는 한에서, 역사 교과는 인간의 과거행적을 통해 무엇보다 인간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기에 적합한 교과가 된다. 비록 모든 교과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기이해를 돕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히 역사라는 교과는 바로 인간의 과거행적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의해 다른 교과와 구별된다. 역사가 자기 나라의 역사로 좁게 이해되는 한에서, 역사 교과는 무엇보다도 한 국가시민이 지닌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에 적합한 교과가 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역사는 그 국가의 발전과정과 현재상황을 일깨우면서, 국가시민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까닭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질문은 역사 교육이 기대하는 바인 인류의 과거행적의 학습을 통한 인간의 자기이해나 한 국가의 발전과정의 학습을 통한 국가시민의 책임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지는가 라는 것이다. 아울러 역사 교육이 의도하는 바인 역사적 태도나 역사의식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 하이데거의 역사사유로부터 그 가능한 답변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 제기된 질문들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일반교과와 역사교과의 교육목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일반교과의 교육목표들

모든 교육은 일정한 목표들을 갖고 행해진다. 역사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역사교육의 목표들을 다루기에 앞서 교육일반의 목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의 목표들은 교육의 내용범위나 대상범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교육의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들 속에서 얻어진 대표적 결실은 블룸(B.S.

## 하이데거의 역사성과 역사교육

Bloom)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교육목표 분류학이다. 블룸은 거기서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속한 목표들을 위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역사교과에서의 교육목표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 일반에 대한 블룸의 교육목표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2)</sup>

### I. 인지적 영역

#### 1. 지식

- 1)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용어와 사실 등)
- 2)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식이나 수단의 지식(관계형식, 시간연결, 유목분류, 판단기준, 연구방법 등)
- 3)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원리, 일반화, 이론, 구조)

#### 2. 이해력

- 1) 번역(다른 언어나 다른 상징형태로 변환하기 등)
- 2) 해석(아이디어들의 인과관계, 대소관계, 종류관계, 영향관계의 파악 등)
- 3) 추론(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거나 예측해 내기 등)

#### 3. 적용력(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태에 관련시키기, 법칙을 응용하기 등)

#### 4. 분석력

- 1) 요소들의 분석(스스로 작품 속의 가정, 가치, 관점들을 찾아 내기 등)
- 2) 관계들의 분석 (작품 속 아이디어들의 인과적, 논리적 관계

---

2) 임의도 공역, 『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1: 지적 영역』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교육과학사, 1983. 임의도 공역, 『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2: 정의적 영역』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교육과학사, 1983.

## 논문

찾아내기 등)

3) 조직원리들의 분석(작품의 형식, 구조, 배열방식을 찾아내기 등)

### 5. 종합력

1) 독특한 의사전달의 생산(독특하게 글쓰기, 말하기, 도표화하기 등)

2) 조작절차나 계획의 생산(검증방식이나 해결절차를 제시하기 등)

3) 추상적 관계의 도출(가설이나 이론을 제시하기 등)

### 6. 평가력

1) 내적 기준에 의한 판단(내적 일관성에 의해 작품의 정확성 판단하기 등)

2) 외적 기준에 의한 판단(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수준 판단하기 등)

## II. 정의적 영역

### 1. 수용

1) 감지(인물이나 사건을 의식하기 등)

2) 자진 감수(이야기를 기꺼이 듣기 등)

3) 주의 집중(이야기 내용을 분별하면서 주의 깊게 듣기 또는 보기 등)

### 2. 반응

1) 목중 반응(건강규칙을 말없이 따르기 등)

2) 자진 반응(나와 남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등)

3) 만족 반응(나와 남의 건강을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지기 등)

### 3. 가치화

1) 가치 수용(인류애를 가치로 인정하고 희망하기 등)

2) 가치 선호(인류애 가치에 맞게 소외된 동료의 팀 합류 책임을 떠맡기 등)

3) 확신(인류애를 확신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 4. 조직화

1) 가치의 개념화(가치의 의미와 외연, 필요성과 중요성, 보존 방안들의 파악 등)

## 하이데거의 역사성과 역사교육

- 2) 가치체계의 조직 (가치들의 중요도를 기준 가치에 비추어 조정하기 등)
5. 하나의 가치나 가치복합에 의한 인격화
  - 1) 일반화된 행동태세(가치로운 증거, 목표나 결과를 고려하는 일관된 행동 등)
  - 2) 인격화 (가치들의 내면화로 개인의 고유한 성격의 형성 등)

위에 제시된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들 사이에서는 위계관계가 성립한다. 이 교육목표들 사이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오는 것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뒤의 교육목표에 대해 선결조건이 된다.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들에서는 복잡성의 정도가 위계관계의 기준이 되고 있고,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들에서는 내면화의 정도가 그 위계관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 3. 역사교과의 교육목표

각각의 교과는 블록의 이 같은 교육목표 분류표를 기준으로 삼거나 이를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교육목표분류를 시도해왔다. 역사교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의 콜담(J.B. Coltham)과 파인즈(J. Fines)는 1971년에 발간된 소책자 『역사의 학습을 위한 교육적 목표들』에서 블록의 목표분류학에 나온 교육목표들을 대체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들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통합하고, 역사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목표의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이들에 교육목표들을 배정하였다. 그 네 영역이란 1) 역사학습에 대한 태도, 2) 교과목적 특성, 3) 기능과 능력, 4) 학습의 교육적 결과인데, 이들에 속한 역사교육의 목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3) 참고: 정선영 공저,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78-82쪽. 양호환 공저,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333-335쪽. 이원순 공저,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0, 40-43쪽.

## 논문

### 1. <역사학습에 대한 태도>의 영역

- 1) 주의(역사적 이야기에 관심 갖기 등)
- 2) 반응(역사적 사실에 의견표명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등)
- 3) 상상(자신을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며 시대문제를 이해하기 등)

### 2. <교과목적 특성>의 영역

- 1) 자료특성 알기(1차 자료적인 유물과 유적을 알기, 2차 자료 속의 용어들 알기 등)
- 2) 절차의 조직(자료수집과 자료평가, 내용의 분석과 종합 등)
- 3) 산출(자료를 비교해보기, 사실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등)

### 3. <기능과 능력>의 영역

- 1) 분석(증거들의 유사성과 차이점 찾기, 증거요소들 사이의 연결성 확인 등)
- 2) 외삽(증거에서 결론 추론하기, 합리적 가설 형성하기 등)
- 3) 종합(자료들을 조직하기, 당대의 생활조건을 재구성하기 등)
- 4) 평가(기준에 의한 판단, 가치들의 시대적 식별, 결론의 수용이나 거부 등)
- 5) 전달(주요특징 도표화, 연극으로 재현, 일정 형식으로 연구결과물 작성 등)

### 4. <학습의 교육적 결과>의 영역

- 1) 통찰(이질적 문화 이해하기, 상이한 신념 인정하기, 삶의 시대적 변화 수용하기 등)
- 2) 가치의 인식(행동규정의 가치들 인식, 개인의 가치선택의 결정요인들 인식 등)
- 3) 합리적 판단(보고자료 속 편견들 확인, 증거들의 불완전성의 확인, 현재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등)

우리는 앞에서 역사교육이 1)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면서, 2) 역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3) 역사적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활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에 비추어 우리는 불륨과 그 동료들 그리고 쿨담과 파인즈에 의해 제시된 교육의 목표들이나 역사교육의 목표들을



지식과 사고력, 태도라는 세 영역으로 재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룸과 그 동료들이 인지적 영역에 배치한 바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은 단순한 지식과는 대비되는 사고력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정의적 영역에 배치한 바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는 모두 태도와 관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콜담과 파인즈가 말하는 바 ‘역사학습에 대한 태도’(주의, 반응, 상상)와 ‘학습의 교육적 결과’(통찰, 가치의 인식, 합리적 판단)는 주로 태도에 관련되고, ‘교과목적 특성’(자료특성 알기, 절차의 조직, 산출)은 대체로 지식에 관련되고, ‘기능과 능력’(분석, 외삽, 종합, 평가, 전달)은 사고력에 관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태도가 역사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역사적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에서 종종 역사적 태도의 형성은 ‘역사적 학습’의 의미에서 배제되고 만다. 가베이와 크룩은 역사의 학습이란 말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거기서도 학습의 내용범위에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사고력(기능과 능력)은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적 태도는 배제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태도’의 의미를 해명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평가의 가능성 여부가 교육목표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콜담과 파인즈가 학습의 교육적 결과로 기대하는 바 ‘합리적 판단’이나 블룸과 그 동료들이 교육목표로 제시한 ‘가치화’는 역

---

4) 그들에 의하면 역사의 학습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갖는다:

- (1)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
- (2) 과거 사건이나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파악한다.
- (3) 역사적 서술을 평가하고 비판할 능력을 획득한다.
- (4) 역사적 탐구의 기술을 배운다.
- (5) 역사서술의 기법을 배운다(Brian Garvey and Mary Krug, *Models of History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2. 김한중,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법, 『교원교육』 15,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1999에서 재인용).

사교육이 목표하는 바 역사적 태도에서의 중심요소들이다. 그런데 블룸의 교육목표의 해설이나 콜담과 파인즈의 역사교육목표의 해설에서 그 개념들의 의미는 매우 간략하게 해설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갖는 삶 관련적 의미 내지 실존적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에서 역사적 태도로서의 ‘합리적 판단’이나 ‘가치화’가 가질 수 있을 실존적 의미를 찾기 위해 하이데거의 역사성 개념을 추적하기로 한다.

### Ⅲ. 현존재의 발생과 본래적 역사성

#### 1. 역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한 물음

역사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이지만,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는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순간 순간에 명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는 그 의미에 있어서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일 것이다. 역사가 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함은 역사가 그 의미에 있어서 장래를 위해 현재의 인간에 의해 매번 새롭게 틀 지워지고 회복되는 방식으로 그때마다 발생함을 말한다. 다시 틀 짓는 역사회복과 더불어 인간에게서는 그때마다 인간 자신의 존재도 새롭게 이해되고 또 이런 의미로 새롭게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도 발생이라는 방식이다. 역사의 본래적 발생은 인간의 본래적 발생과 동시적이다. 따라서 역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한 물음은 동시에 인간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딜타이도 역시 아무 영향 없이 정태적으로만 머무는 과거사실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오직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사실만

이 인간의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영향연관으로서의 역사가 어떤 실존론적 근거(인간의 실존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곧 시간성)를 전제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것을 다만 역사사실들의 이해에 뒤따르는 심리적 자연사실로 간주한다.<sup>5)</sup>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적 존재가 능성이 바로 역사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사유는 어떻게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역사에 대한 결정적인 물음은 사실적 연관이나 사실적 연속성의 의미해석에로 제한된 물음일 수가 없다.<sup>6)</sup> 오히려 근원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의해 명시적으로 인수될 수 있는 실론론적 근거이다. 명시적 인수란

- 
- 5) 역사는 단지 “하나의 연관을 형성하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된 삶”(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GA VII), Hg. Vandenhoeck & Ruprecht, Stuttgart 1962, 256쪽)이다. 이러한 역사는 역사적 체험들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이 역사적 체험들은 추후체험들(삶의 외현대상의 이해)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체험연관이 작용연관과 의미연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추후체험을 통해 구성되는 역사에는 작용연관과 의미연관이 속한다. 이러한 연관은 삶의 시간적 연관속에서 구성된다. 역사학은 연관을 전제로 삼고 삶의 외현대상들의 이해를 통해 역사적 체험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다. 이 역사적 체험들은 그 자체로 심리적 시간구조에 의거해 작용연관 및 의미연관으로 형성된다. 결국 딜타이에게서 역사의 작용연관과 의미연관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속에서의 심리적 연관이다. 역사의 작용연관 및 의미연관은 “역사학적 작업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작업의 산물”(Kaufmann, Fritz, *Geschichtsphilosophie der Gegenwart*, Berlin 1931, 110쪽, 참조: Diwald, Hellmut, Dilthey, Göttingen 1963, 114쪽), 다시 말해 리케르트식의 역사학적 구성작업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학적 이해로부터 생겨난 추후체험들의 심리적-시간적 통일의 결과이다. 그렇게 딜타이에게서는 심리적 연관이 역사적 연관을 지탱한다.
- 6) 이 점을 카우프만은 다음과 같이 사실에 맞게 파악한다: “어떤 존재성격, 어떤 운동성격을 도대체 역사가 갖고 있는지가 명확해질 때에야 비로소 한 역사적 운동의 사실적인 방향의미에 대한 물음의 권리에 대해 참되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Kaufmann, F., *Geschichtsphilosophie*, 120쪽)

‘시대를 가르는 비연속성’(epochemachende Diskontinuität)으로서의 역사적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sup>7)</sup> 역사의 연속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방식,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라면, 역사의 연속성의 성립, 곧 역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본래적 발생에 대한 물음일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래적 발생을 인간의 시간성에 근거를 두고 해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적 역사성이라고 간주한다. 아래서 우리는 이점을 추적할 것이다.

## 2.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을 해명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 먼저 ‘역사’(Geschichte)의 통속적 의미를 분석한다(SuZ, 500-501). 그에 따르면, ‘역사 내지 역사적’이라는 말 아래서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은 역사학(Historie)을 논외로 했을 때, (1) 현존하든 않든 간에 지나간 것(역사적 현실), (2) 유래(영향연관), (3) 정신이나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한되는 존재자 영역(자연과 대비되는 것), (4) 알고 서든 모르고서든 여하튼 인수된 것(전승된 것) 등이다.

하이데거는 역사의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강조된 의미에서의 역사”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바로 ‘실존하는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spezifisches Geschehen)이라고 규정한다: “역사는 실존하는 현존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발생이고, 그래서 강조된 의미에서의 역사로서 타당한 것은, 공동존재 속에서 ‘지나간’ 그리고 동시에 ‘전승된’ 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발생이다.”(SuZ, 501) 인간의 삶에 지나갔으되 전승되면서 계속 영향을 미친다

---

7) 가다머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건 진행속에서 불연속성이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의 탁월함속에 역사적 연속성을 보존하고 경험할 가능성이 근거를 둔채로 있다.”(Gadamer, *Hermeneutik: Wahrheit und Methode*, Bd.2, 144쪽)

는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삶이(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인류의 차원에서도) 일종의 영향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은 현존재의 존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존재가 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현존재의 발생의 시간적 구조가 물어질 필요가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하이데거는 ‘역사’의 여러 의미를 규명하고 난 후, ‘역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박물관의 유물이 일상적 의미에서 역사적인 것이다. 유물은 과거의 세계에 속해 있던 것이고, 따라서 이 과거의 세계도 역사적인 것이다. 이 과거의 세계는 다시금 과거의 현존재에게 속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 과거의 현존재도 역사적인 것이다.

과거의 현존재는, 그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말할 수 있는 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진 채로 이미 존재해온(기재해온)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하이데거는 과거의 현존재를 ‘현(Da: 개시된 세계)으로 기재해온 현존재’(das da-gewesene Dasein)라고 부른다. 유물과 세계, ‘현으로 기재해온 현존재’ 사이의 상호 관련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현으로 기재해온 현존재’, 곧 고인이고, ‘이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지나간 세계에 속했던 것’, 곧 유물’이다(SuZ, 503-504).

이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지나간 세계에 속했던 것으로 세계내부적 존재자이다. 하이데거는 역사학이 ‘세계사’를 구성하기 위해 그것에로 방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세계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현으로 기재해온 자’로서만 역사적이지 않고,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자’로서도 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재에 실존하고 있는 현존재는 자신의 시간성에서 볼 때 역시 ‘기재해온 자’(=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속해온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역사학의 일차적 ‘주제’에 불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이고 주장한다.

위에서 우리는 강조된 의미에서의 역사는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이고, 현존재가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이란 현존재의 발생의 특수한 방식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서는 직접 해설하지 않고 다만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해 해설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을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의 특수한 변양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인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의 시간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의 시간성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을 다른 표현으로 ‘현존재의 본래적 자기이해’라고 부르고, 이것에 관한 논의를 선구적 결의성(Vorlaufende Entschlossenheit)이라는 개념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구적 결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는 식의 삶을 ‘죽음에 대한 현존재의 비본래적 존재’라고 부른다. 반면에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의 가능성으로부터 부단히 영향받는 식의 삶을 ‘죽음에 대한 본래적 존재’라고 부른다. 그는 죽음에 대한 본래적 존재를 선구라는 용어를 통해 규정하고, 죽음에 대한 비본래적 존재를 회피라는 용어를 통해 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인간이 세계 속으로 내던져져 진 채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 ‘현존재의 책임존재’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장 고유한 책임존재에 의거한 자기기투’를, 곧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결의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선구라는 현상과 결의성이라는 현상이 서로 분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실존적으로 서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

면서, 그럴 수 있는 근거를 결의성의 존재경향에서 찾고 있다: “결의성은 본래 자기가 그것일 수 있는 것인 종말에 대해 이해하는 존재, 즉 죽음에로의 선구로 된다. [...] 결의성은 죽음에 대한 본래적 존재를 자기 안에 보유하되, 자신의 고유한 본래성의 가능한 실존양상으로 보유한다.”(SuZ, 405) 결의성은 자신의 존재경향에 있어서 선구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선구는 결의성의 본래적인 가능성적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구가 된 결의성을, 곧 선구로서의 결의성을 선구적 결의성이라고 부른다.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의 실존론적 가능근거를 밝히기 위해 그것의 시간적 성격(시간성)을 밝힌다. 그는 먼저 장래(Zukunft)라는 시간현상의 실존론적 의미가 “자기에게 다가옴”이라고 밝히고, 앞서 말해진 선구는 ‘자기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죽음)에서부터 자기에게 다가옴’이라고 밝힌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본래적 장래라고 부르는 한편, ‘주변의 배려된 것들에서부터 길어내진 존재가능성에서부터 자신에게 다가옴’은 비본래적 장래(=예기)라고 부른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전을 기억하면서 존재해오고 있고,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시간도 언제나 현재에 모여 있다는 점에서, 과거라는 낱말 대신 기재성(Gewesenhe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이 기재성의 실존적 의미는 ‘가장 고유한 자기, 고립되도록 피투된 자기에게로 되돌아옴’, 곧 ‘피투성(책임존재)에서의 자기에게로 되돌아옴’이라고 밝힌다. 그에 의하면, 비본래적 기재성은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책임존재)을 잊어버리면서 자기에게 돌아옴’(=망각)이고, 본래적 기재성은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다시 되찾으면서 돌아옴’(=회복)이다. 위에서 말한 결의성은 본래적 기재성에 근거를 둔다.

선구로서의 결의성, 곧 선구적 결의성은 본래적인 장래와 본래적인 기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선구적 결의성에서는 “본래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옴”이 “동시에 가장 고유한 자기, 곧 고립에로 피투된 자신에게로 돌아옴”(SuZ, 448)이 되는 식으로 이 둘은 통일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이 같은 선구적 결의성의 현상을 불안

(Angst)의 현상과 대비시켜 그 특징을 명료화한다. 한편으로 불안은 현존재에게 그의 가장 극단적인 존재가능성인 죽음을 드러내 주고는 있지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떠맡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선구는 현존재가 죽음을 자기 것으로 떠맡고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곧 ‘죽음에 대한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이점에서 선구는 불안과 다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은 현존재에게 그의 책임존재(피투성)를 드러내주고는 있지만, 자신의 책임존재 대로 존재하도록,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존재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에 결의성은 현존재가 자기의 책임존재대로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존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결의성은 불안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불안은 나름대로 적극적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불안이 결의성에 의해 준비되는 것으로서 이 결의성으로 하여금 선구로, 곧 ‘죽음에의 선구’로 변양되도록 촉구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힌다. 결의만 하고 있는 현존재, 곧 결의적 현존재는 불안해하면서 다만 자신의 책임존재를 회복할 가능성 앞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이 같이 회복가능성 앞에 머물음은 회복 자체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은 현존재에게 죽음의 가능성을 개시해 주면서 주변의 것들로부터 얻어낼 만한 “‘허무한’ 가능성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책임존재라는 “본래적인 가능성”(SuZ, 456)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결의(Entschluss)를 통해 자신의 책임존재를 회복적으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해 회피하면서 자신의 회복가능한 피투성을 은폐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선구적 결의성이다. 선구적 결의성이란 결국 죽음에로의 선구이자 책임존재의 회복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 곧 선구적 회복에 있어서 현재는 “장래와 기재 속에 유지되고 있고”(SuZ, 447) 이들로부터 풀려나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의성의 선구에 속해있는 현재”를 “결의가 상황을 개시하는” 시간현상으로서 “순간”(ebd)이라고 부른다. “결의”의



“순간”에 현존재가 처해 있던 ‘객관적’ 상황은 본래적인 상황으로, 곧 현존재에게 고유한 의미를 지닌 상황으로 급변한다. 순간이라는 시간 현상은 장래와 기재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로서 선구적인 회복을 통해 열려진 상황 전체를 드러내준다. 그 같은 순간은 “상황을 본래적으로 현재화하는 것”(SuZ, 542)이고, 이를 통해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나 형편들에 입각해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바의 것[사물이나 일]에 현존재를 밀어내는 것”(SuZ, 447)이다.

선구적 결의성에서 시간현상들(장래, 기재성, 현재)의 성격이 이렇게 확인되는 한에서 선구적 결의성의 통일적인 시간성은 선구하며 - 회복하는 - 순간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성 속에서 존재 일반(=자기존재, 타인존재, 사물존재 등)이 본래적으로 개시된다. 따라서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성은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의 시간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현존재의 상황 내지 현존재의 세계의 발생의 시간성이다. 하이데거는 이 같은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성 분석을 본래적 역사성의 시간성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 4. 본래적 역사성: 자기전승, 취소적 응답, 역사의 발생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죽음)에 입각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자신을 자신의 피투성(책임존재)에 있어서 인수하면서, 자신에게 실존의 한 가능성을 전승한다. 그런데 이때 현존재가 자기에게 전승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실존가능성들은 죽음에서 취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의성 속에서, 곧 피투성의 회복 속에서 취해져야만 한다. (선구적) 결의성은 그 자체로 피투성의 인수인데, 이 인수가 상황의 열림을 가져온다: “고유한 현사실적 ‘현’[피투성, 피투된 자기, 피투된 세계]의 결의적인 인수는 동시에 상황 속으로 들어서는 결의를 의미한다.”(SuZ, 506) 상황의 열림은 현존재의 피투성의 인수와 동시에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던져져 있는 자신의 피투성의 인수는 “실존[현존재]이 거기서 자신의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평”(ebd)을 개시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유산(Erbe)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평이라고 한다. 그 지평, 곧 유산은 바로 결의한 현존재에게 개시되어 있는 현사실적 가능성들이 놓여 있는 곳이다. “그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자신에게 돌아오는 바로 그 결의성은 본래적 실존의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가능성들을 유산에서부터 개시하는데, 이 유산은 결의성이 [그 유산 안으로] 피투된 결의성으로서 인수한 것이다. 피투성으로 결의적인 돌아옴은 전해져온 가능성들의 자기전승을 포함하는데, 그 가능성들을 전해진 것들이라고 반드시 알면서 그리하는 것은 아니다.”(SuZ, 507)

‘세계 속으로의 피투존재’라는 자신의 고유한 기재존재의 인수는 피투된 자신의 인수이자 자신이 그리로 피투되어 있는 세계(=지평, 유산)의 인수이고, 이러한 세계의 인수는 동시에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여러 실존가능성들의 인수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전해져온 가능성들의 자기전승에 있어서는 하나의 실존가능성의 선택적 발견이 수행되며, 이러한 선택적 발견이 현존재를 상황 속으로 내민다고 말한다. 세계 내지 세계내의 실존가능성들의 인수가 나 자신의 실존가능성의 선택적 발견과 더불어 일어나는 한, 나의 이전의 세계는 이제 내가 선택한 나의 실존가능성과 관련되어 새롭게 틀지워진다. 나의 이전의 세계가 이제 나의 현재적 상황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결의성은 그것의 존재경향에 따라 선구적인 결의성으로 되는데, 하이데거는 이 경우에 죽음에의 선구가 더욱 강력할수록, 다시 말해 죽음에의 선구에 있어 현존재가 자신을 더욱 본래적으로 이해할수록, “자신의 실존가능성의 선택적 발견은 그만큼 더 분명하고 우연적이지 않다”(ebd)고 말한다. 죽음에의 선구는 “온갖 우연적이고 ‘잠정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존재에게 “목표를 단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열려 있음이 죽음에의 선구인 까닭에, 이

선구는 “실존을 그의 유한성으로” 밀어낸다. 실존의 유한성의 자각 속에서 현존재는 실존의 한 가능성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전승한다. 이 점을 하이데거는 운명(Schicksal)으로 파악한다. “포착된 실존의 유한성이(…) 현존재를 그의 운명의 단순성으로 데려온다.”(ebd) 운명이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결의성 속에 놓여 있는, 현존재의 근원적인 발생”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죽음에 대해 자유로운 채로, 상속되었으나 선택된 하나의 가능성 속에서 현존재가 자신을 자신에게 전승하는”(ebd)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이 같은 발생적 운명성격이 통상적으로 이해된 운명의 실존론적 가능조건이라고 밝힌다.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현존재는 하나의 현사실적인 가능성에 속에서 자신을 자기에게 전승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발생시킨다. 이런 한에서 하이데거는 결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결의한 사람만이 하나의 운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현존재가 하나의 실존적 가능성을 자기에게 전승하는 것은 현존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발생이고, 이것은 그 고유한 성격에 있어서 운명이다.

운명적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서 본질상 다른 현존재들과의 공동존재 속에서 실존한다. 이런 한에서 현존재의 발생은 하나의 공동발생, 곧 역운(Geschick)이다. 역운이라는 말로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 민족의 발생”(SZ, 508)이다. 역운은 개별 운명들의 복합적 총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존재에 있어서의 현존재의 발생을 말한다. 이렇게 현존재의 완전하고 본래적인 발생은 “자신의 ‘세대’(Generation)속에서 세대와 함께 이뤄지는 현존재의 운명적인 역운”이라고 파악된다. 현존재의 운명이 세대를 대표하는 현존재의 운명일 경우, 그것은 역운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하나의 현사실적 가능성의 자기전승이라는 현존재의 발생은 그 완전한 구조에 있어서 현존재의 운명적 역운으로 수행된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적 역운이 바로 ‘강조된 의미에서의 역사’나 ‘영향연관’으로서의 역사에 대해 그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재의 역운적 운명, 곧 본래적 발생은 현존재의 시간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운명이 현존재의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수행되는 발생, 곧 현존재의 자기전승의 발생인 한에서, 운명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은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성이고, 그것은 장래적-기재적-순간적인 시간성이다. 이 점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한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장래적인, 그래서 죽음에 대해 자유로이 열린 채 죽음에 부딪혀 부숴지며 자신의 현사실적인 현으로 되던져질 수 있는 존재자만이, 다시 말해 장래적인 자로서 동근원적으로 기재적인 존재자만이 상속된 가능성을 자기자신에게 전승하면서 고유한 피투성을 인수하고 ‘자신의 시대’에 대해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래적이면서도 또한 유한한 시간성만이 운명 같은 어떤 것, 즉 본래적인 역사성을 가능하게 한다.”(SuZ, 509)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하나의 가능성 속에서 자기를 전승함이, 곧 운명이 바로 현존재의 본래적인 발생이자 본래적인 역사성이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상적 삶의 모습, 곧 심리적인 영향연관의 삶과는 분명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본래적 발생의 파생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기투의 가능성들의 유래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유래처는 전승된 바의 현존재이해(=인간의 전승적인 자기이해; 인류의 삶의 행적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현존재는 “자기를 그것에 입각해 기투할 그런 실존적 존재가능성을 전승된 현존재이해에서부터 명시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전승된 현존재이해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하나의 현사실적 가능성을 자기전승함은 “명시적인 전승”, 곧 “전해져온 하나의 실존가능성의 회복”이다. 명시적인 전승은 가능성들의 유래처를 알고 있는 바의 전승이다. 이런 한에서 그것은 그 자체로 역사상의 “현존재의 가능성들 속으로의 회귀”이고, 또 이러한 회귀 속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기재적 가능성의 회복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 같은 회복은 한편으로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취소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기재적 가능성에의 응답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취소적 응답으로서의 회복은 “그것을 통해 현존재가 명시적으로 운명으로 실존하는 그런 자기전승적 기재성의 양상”(SuZ, 510)을 특징지우는 것이다. 본래적인 역사성 속에는 기재해온 실존 가능성에의 응답과 더불어 ‘지나간 것’의 취소가 놓여 있다. 취소적 응답으로서 본래적 역사성은 비연속적 연속성을 수립하는 회복이다. 취소적 응답으로서의 회복(자가전승)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은 자신을 과거에 넘겨주지도 않고, 진보를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그 두 가지는 순간 속에서의 본래적 실존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SuZ, 510) 하이데거는 이 대목에서 비연속적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회복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된 자기기투, 곧 장래에서부터 시간화하면서, 현존재는 한편으로 오늘에 미치고 있는 ‘지나간 것’의 영향을, 즉 현재에 대한 ‘과거’의 연관을 중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재적 가능성이 현사실적 실존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곧 기재적 가능성과 현재와의 연관을 수립한다. 회복은 ‘지나간 것’의 취소이자 기재해온 실존 가능성에의 응답이다. 취소적 응답으로서의 회복은 비연속적 연속성의 수립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회복 속에서 ‘지나간 것’이나 진보에 관한 이야기는 억제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비연속적 연속성의 수립에서부터 결정되고 규정되는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운명은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의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이다. 이런 한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역사가 “자신의 본질적인 비중을(...) 지나간 것이나 오늘, 또는 이들의 ‘연관’에 두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의 장래에서부터 생겨나는, 실존의 본래적 발생에 두고 있고”, 이로써 “자신의 뿌리를 그렇게 본질적으로 장래에 둔다”(ebd)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이데거는 운명, 곧 실존의 본래적 발생이, 기재성 속에서 개시된 채 전해져온 유산에서부터 하나의 기재적 가능성을 전승함이자 회복함이므로 “본래적 역사의 발

생은 [...] 그의 비중을 기재성에”(SuZ, 511) 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 문장들은 매우 난해하기는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역사, 곧 운명은 과거나 현재에 또는 이들의 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본래적 발생에 본질적으로 속해 있다; 그런데 실존의 본래적 발생은 한편으로는 현존재의 장래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재적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의 본래적 발생은 장래라는 시간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자 현존재의 기재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에 의해 왜 역사학에서 ‘미래’를 위해 ‘과거’가 강조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회복이 현존재에게 그의 고유한 역사를 비로소 드러내준다”(SuZ, 511)고 말한다. 회복, 명시적 자기전승, 현존재의 발생, 운명적 역운 속에서 비로소 현존재(개인과 인류)의 고유한 역사가 그러한 역사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은 전해진 유산에 결속하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고유한 역사를 그러한 역사로서 개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존재의 회복 내지 현존재의 본래적 발생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발생이 이뤄진다.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 속에 놓여 있는 바 현존재의 발생”, 즉 “선구하면서 자기에게 전승하면서, 가능성들의 유산을 회복함”(SuZ, 516, 511 참조)을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이라고 규정한다. ‘자기전승으로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역사성 개념은, 역사(사건)는 일회적인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다는 통상의 견해에 맞서 의미심장하다. 역사는 과연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현존재가 하나의 실존가능성을 자기에게 전승하는 경우에, 그것은 현존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같은 전승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위에서 우리는 먼저 일반교과와 역사교과의 교육목표들을 살펴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역사교육의 목표영역은 역사적 지식,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태도로 구분될 수 있고, 역사적 태도 영역에서 주요한 교육목표는 역사적인 가치화와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이 되리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역사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강조된 의미에서의 역사인 현존재의 특수한 발생이나 딜타이가 말하는 삶의 영향연관이 결국 현존재가 역사 속의 존재가능성들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존재가능성을 선택적으로 발견하여 자신에게 전승하는 일, 곧 현존재의 자기전승의 과생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현존재의 자기전승이 과거에 대한 취소적 응대의 성격을 갖고, 새로운 상황을 열면서 이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도 알아보았다. 이 같은 논의들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 태도 영역에 속한 주요한 역사교육목표들, 곧 역사적인 가치화와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의 실존적 의미를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가치화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실존적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화가 갖는 의미를 밝혀본다면, 그것은 역사적 가치에 의거해 자기를 규정하고, 이런 규정을 통해 자기의 존재의미를 확보하고, 이런 존재의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역사적인 가치화라는 것은 결국 역사적인 자기규정과 관련된 개념이 된다. 역사적인 자기규정, 곧 역사적 가치에 의거해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찾고, 이를 수용하고 실현해 간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이란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존적 의미에서의 판단이란 현재상황에 대한 머릿속의 시비판단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적 가치의 회복에 의해 현재의 상황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의까지도 함축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결의는 물론 개인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의 실존적 의미는 현재에 미치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 구습을 단절하고 잠재적으로만 머물러온 역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적 결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인 합리적 판단이란 것도 과거에 대한 취소와 응대를 수반하는 개인의 역사적 자기규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역사적인 자기규정이 개인들에게 언제나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규정의 가능성이 개인들에게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의 현실성에 놓여 있지 않고, 그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교육이 인간의 현실성의 승인을 촉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의 실현을 돕는 활동이라면,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자기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개인의 존재의미(본질)는 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존재의미는 그때마다의 개인의 자기규정에 의해 생겨난다. 개인의 존재의미가 자기규정에 앞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도 본질(존재의미)이 실존(자기규정)에 앞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것이다. 내가 나를 규정함에 의해 비로소 나의 존재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규정에 필요한 인간의 존재가능성들이 역사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역사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역사적 자기규정의 문제는 언제나 그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 역사교육의 지향목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소광희 역, 『존재와 시간』, 경문사, 1995.
- 양호환 공저,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 이원순 공저,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0.
- \_\_\_\_\_, 『역사교육』, 정음문화사, 1985.
- 정선영 공저,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임의도 공역, 『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1: 지적 영역』, 교육과학사, 1983.
- \_\_\_\_\_, 『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2: 정의적 영역』, 교육과학사, 1983.
- Bloom, B.S.,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York : Longmans Green, 1956.
- \_\_\_\_\_,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 1964.
- Heidegger, M., *Sein und Zeit* (1927), Hg. F.W. v. Herrmann, Frankfurt, 1977.
- Dilthey, W.,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GA VI), Hg. Vandenhoeck & Ruprecht, Stuttgart 1962.
- Diwald, Hellmut, *Dilthey*, Göttingen 1963.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Bd.2, Tübingen 1986.
- Kaufmann, F., *Geschichtsphilosophie der Gegenwart*, Berlin 1931.
- \_\_\_\_\_, “Geschichtsphilosophie” In: *Die Philosophie im XX. Jahrhundert*, Hg. Fritz Heinemann, Stuttgart 1963.